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단식과 금욕을 통해 우리 교우들도 보다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복된 사순 시기를 맞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 본당 신부님께서 부친상으로 한국에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신 김일량 마태오 형제님과 신부님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2008 교무금 책정 및 납부 안내
 -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않고 모든 교우들이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서에 기입하셔서 재정위원장 김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사단 **참고 시험**이 다음 주 미사 후 Parish Center 내 사제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 ◆ 사순 기간 2 차헌금
 빈첸시오회 기금마련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순 2 주일, 사순 5 주일 미사 중 2 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성가대에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영주 마리아 단장 (614-315-859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Tax Report 를 위한 **헌금 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주 미사 후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 ◆ **성모회** 2월 모임
 - 일시: 2월 20일 오전 10:30
 - 장소: 사제관
 - * 모임 후 함께 사제관을 정리할 예정이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황석두 구역** 모임
 - 일시: 2월 23일 오후 7시
 - 장소: 이제옥 골롬바 자매님 덕
3827 Preserve Crossing Blvd
Gahanna, OH 43230
(614)245-8116
- ◆ 친교 봉사자
 - 2월 17일: 한석철
 - 2월 24일: 안유신
- ◆ 주일학교 봉사자
 - 2월 17일: 김명희 박수희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45.00
교 무 금	\$1130.00

- 교 무 금: 한석철 사윤진 이제옥 김오경 최석원
최규선 박석현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사순 제2주일 February 17, 2008



<변모>

클라우드 파스트로(1948-), 프레스코화, 리오의 성모성당, 브라질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창세기 12,1-4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소명”

화답송



제 2 독서 티모테오 2서 1,8-10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마태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180단	10명
이호영	225단	3명	7,015단	59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335단	4명	4,770단	49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560단	7명	2/22/04-2/10/08 (207주)	

총누계: 193,895단 12,630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월 17일	2월 24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72 ♫ 봉헌: 216
♫ 성체: 501 499 ♫ 파견: 491

생명의 말씀

거룩한 변모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서울대교구

사순 제 2 주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1-2).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신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으신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복음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교회는 회개와 뉘우침의 분위기의 이 사순절 초기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을 배치한다. 그것은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회개와 뉘우침의 생활로 이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아니, 자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대며?”

“그렇다네.”

“그럼 가톨릭교회에 대해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가톨릭교회가 어떤 곳인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곳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여보게, 미안하네만 나도 잘 모르겠네...”

“아니, 자네, 성당에서 세례 받았다고 하고선 성당에 대해 아는 것이 없잖아!”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별로 아는 것이 없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네.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성당에 다니지 않을 땐, 난 사회에 불만이 가득했고 항상 불평만 하고 살았다네.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항상 잔소리에, 무서운 남편, 아빠였다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해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지. 아내 역시 나를 참으로 많이 미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 가정 역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네. 저녁마다 아이들과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 역시 집에 있으면 행복하거든. 이게 모두 다 성당에 다니면서 생긴 일이라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네.”

때때로 나 자신에게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말할 때가 있다. 특히 그 변화가 나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졌음을 느낄 땐 커다란 기쁨을 맛본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역시 변화와 성숙에 있다. 세례의 기쁨은 변화이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빛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기쁨도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